

2006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영어 전치사 좌초현상에 관한 기능적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우 경 순

영어 전치사 좌초현상에 관한 기능적 분석

A Functional Approach to the English Preposition Stranding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우 경 순

영어 전치사 좌초현상에 관한 기능적 분석

지도교수 이 고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우 경 순

우경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i
I. 서 론	1
II. 통사론적 입장에서 전치사 좌초 분석	3
1. Hornstein & Weinberg(1981)의 이론	3
2. Chomsky(1981)의 이론	9
3. Kayne(1981)의 이론	13
III. 기능론적 입장에서 전치사 좌초 분석	23
1. 현저성 원리	23
2. 식별 가능성	28
3. 정보의 중요성	33
IV. 결론	51
참고문헌	53~55

ABSTRACT

A Functional Approach to the English Preposition Stranding

By Kyoung-Soon Woo

Advisor : Prof. Go-Hee Lee, Ph. 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eposition stranding in English, comparing syntactic analyses with functional ones. It is shown that the functional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syntactic one.

Hornstein and Weinberg(1981) claim that preposition stranding, whether it is produced by WH-movement or NP-movement, can be accounted for by using a filter preventing an empty category from receiving an oblique case together with the concept of reanalysis. But their analysis does not seem to be satisfactory because there remain a lot of examples that cannot be explained within their analysis. Kayne(1981) argues that a revised version of Chomsky's(1981) ECP(=Empty Category Principle) is sufficient to account for preposition stranding. However, his analysis cannot account for the asymmetry between the two types of preposition stranding.

Consequently, no syntactic analyses can be satisfactory. Therefore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problem of preposition stranding cannot be adequately accounted for in syntactic terms, and presents an alternative functional explanation in terms of the concept of 'more/less important information'.

I. 서론

전치사구가 이동 규칙에 의하여 문두로 이동될 때, 전치사를 수반하여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구만 이동하고 전치사는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¹⁾

전치사가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전치사 좌초의 허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언어외적 요소가 작용하는 유표적 현상인 영어 전치사 좌초현상을 통사적 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반례가 있다.

본고에서는 영어 전치사 좌초 현상의 수용성에 대해 통사적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기능적 개념을 고려함으로써, 전치사 좌초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2.1에서는 재분석과 격 여과의 통사 규칙에 바탕을 둔 Hornstein and Weinberg(1981)의 전치사 좌초현상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2.2에서는 공 범주 원리에 바탕을 둔 Chomsky(1981)의 설명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2.3에서는 공 범주 원리를 확대 적용하자는 제안을 한 Kayne의 설명과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영어 전치사 좌초 현상에 대한 기능적 분석을 한다. 3.1에서는 Erteschik-Shir(1981) 과 Kuno(1987)의 명사구에서 전치사 좌초에 대한 기능적 접

1) i .a. To whom did you give the book?

b. Whom did you give the book to?

(i a)에서는 Wh-요소가 전치사를 수반하여 이동하였고, (i b)에서는 전치사는 남겨놓고 전치사의 목적어만 문두로 이동 되었다. (i a)와 같은 구문은 전치사 수반 (preposition pied-piping) 구조라고 하고, (i b)와 같은 구문을 전치사 좌초 (preposition stranding) 구조라고 한다.

근방법을 재검토해 보고, 3.2에서는 식별가능성에 의한 전치사 좌초의 수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1과 3.2를 포괄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통사적 분석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전치사 좌초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4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한다.

II. 통사론적 입장에서 전치사 좌초 분석

1. Hornstein & Weinberg의 이론과 그 문제점

먼저 아래 (1)의 예문을 보자. (1a-c)에 있는 전치사들은 좌초될 수 있지만(2a-c)에 있는 전치사는 그렇지 않다.

(1)a. Which table did Mary put her engagement ring [on t]?

b. Who did John talk to Harry [about t]?

c. Who did John give the book [to t]?

(2)a.*Which year did Shakespeare finish writing Hamlet [in t]?

b.??Which stage did Harry hit Mary [on t]?

c.*What inning did the Yankees lose the ball game [in t]?

d.*Which vacation did Jane go to Hawaii [during t]?

위의 예문은 영어에서 전치사구가 보충어 전치사구의 경우엔 정문이지만 부가어 전치사 구의 경우는 비문임을 나타낸다. 또한 (1a~c)에 있는 것처럼 전치사를 하위 범주화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VP(혹은 V')아래에 관할되어진다. 반면에 (2a~d)에서 처럼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위치를 가리키는 전치사 구는 S아래에 부착되어있다. 즉 (1a)의 구조와 (2a)의 구조가 각각 Figure 1과 2로 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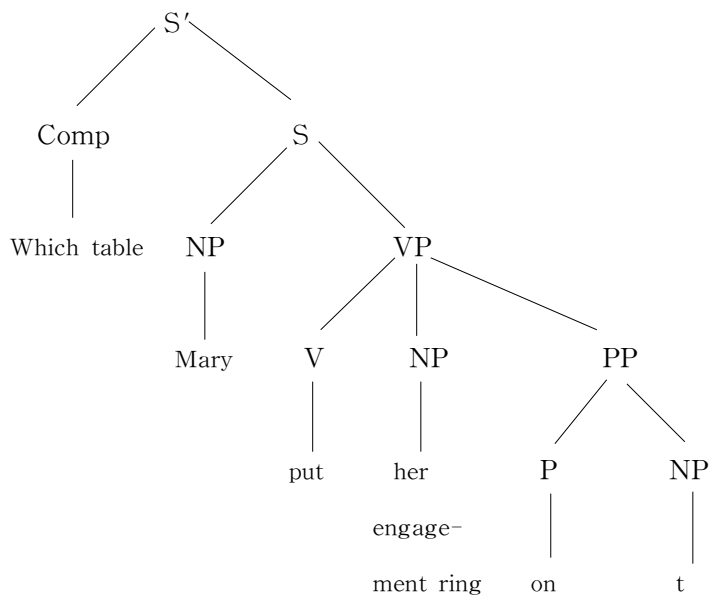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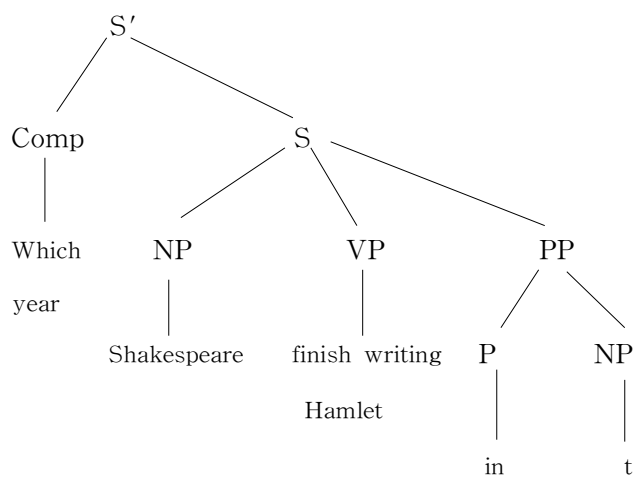


Fig. 2

Fig. 1과 2에서처럼 위의 구조는 VP에 의해 직접 관할되어지는 최대 투영들의 전

치사만이 좌초될 수 있다. 이러한 전치사 좌초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Hornstein & Weinberg는 격 여과를 이용하여 여과장치(Universal Filter)²⁾와 재분석 규칙(Syntactic Reanalysis)³⁾ 그리고 격 이론(Case Theory)⁴⁾을 제시한다.

재분석 규칙은 격 표시 규약에 의해 사격(Oblique Case)을 표시해야 되는 것들과 같은 어휘적 항목이 없는 명사구는 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한다.

(2a~d)안에 있는 각각의 흔적들이 S에 관할되는 PPs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여과장치에 의해 (2a~d)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1a~c)는 VP에 직접 관할되는 PPs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정문이다. 따라서 (1a~c)에서, *put her engagement ring on*, *talk to Harry about* 그리고 *give the book to* 는 모두 그 흔적들을 지배하는 완벽한 동사로서 재분석되었고 사격이 아닌 목적격을 부여받아 정문이다.

동사는 격 이론에 의해 동사가 지배하는 명사구에게 [+objective]의 격을 부여하나, 전치사는 전치사가 지배하는 명사구에게 [+oblique]의 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oblique]의 격을 부여받은 명사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기저위치에 그것의 흔적인 공 범주(empty category)를 남기면 이는 여과장치에 의해서 제거된다.

Hornstein & Weinberg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준다.

첫 번째는 여격구조의 격 현상은 너무 유표적이어서 어떤 다른 기제가 요구된다. 두 번째는 전치사 없는 여격구조의 두 명사구의 목적어 중 하나는 여격구조가 아닌 경우의 동사의 직접 목적어와는 다르다.

2) *[NP \bar{C}]

oblique

3) $V \rightarrow V'$ (Where V c-commands all element in $I_{\bar{C}}$)

4) a. NP is marked [+nominative] if it is governed by tense.

b. NP is marked [+object] if it is governed by V

c. NP is marked [+oblique] if it is governed by P

d. Wh-NPs are assigned the Case of the Closest trace which bears their index and which is in a possible Case position.

Both the Wh-element and the relevant trace are marked with Case.

Hornstein & Weinberg는 여격구조 분석에 사격여과 법칙을 제안한 다음 그 법칙과 전치사구 좌초에 대한 일반적 제약으로서 전치사구내의 이동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그러나 Hornstein & Weinberg 분석은 교차 언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분석이 영어의 격 표시에 관한 가정에 의거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어에는 Hornstein & Weinberg 가 말하는 목적격이니 사격이니 하는 것 사이의 형태론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첫 번째 NP를 사격으로 두 번째 NP를 목적격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것은 마치 [vp V[ep NP]_{NP}]NP구조를 염두 해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위범주화 되지 않은 부가어의 격에 대한 다음 예문을 보자.

- (3)a. What did the gang open the safe [with t]?
- b. Who was Mary kissed [by t]?
- c. What did John save money [for t]?
- d. Who did Mike travel around the world [with t]?

(3a~d)에서 보다시피 전치사 좌초는 방법, 부속물, 도구, 행위자, 목적 등과 같은 부가어의 경우에는 전치사가 좌초된다. Hornstein & Weinberg와 Chomsky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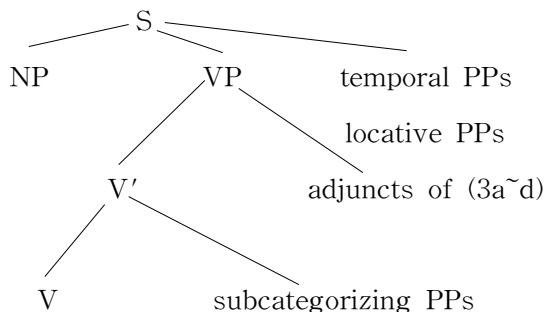


Fig. 3

재분석 규칙에서 살펴보았듯이 Hornstein & Weinberg와 Chomsky는 전치사가 VP에 의해 관할되어지기 때문에 재분석이 (3a~d)에서 부가어에 적용될 수 있다는 Figure. 3의 원리를 따른다. 하지만 재분석은 전치사 좌초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반례들이 있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4)a. John [v likes] apples and Nancy [v] oranges.

b.*Janet [v put her engagement ring on] the sofa and Sue [v] the table.

(5)a.*John [v gave up] smoking, not *up* drinking.

b. The gang [v opened the safe with] a drill, not *with* a key.

(6)a.*John [v gave *carefully* up] smoking.

b. The gang [v opened the safe *carefully* with] a drill.

(7)a.*John [v kept long, wonderful and precious tabs on] Mary.

b. The gang [v opened John's favorite, precious fireproof safe with] a drill.

(4b)에서 *put her engagement ring on* 이 단일동사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4a)처럼 공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4b)는 비문법적이다. 예문 (5a, b)도 *opened the safe with*는 단일동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왜냐하면 동사가 있더라도 그 문장의 부분(예를 들면, (5b)의 *with*)은 생략될 수 없고 다른 단어들과 함께 쓰일 수 없다. 또한 (6a, b)의 예문도 *opened the safe with*는 V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6a)에 있는 단일 동사의 경우와는 달리 (6b)에 있는 *carefully*같은 수식어구는 그 안에 삽입될 수 있다. 더욱이 *Keep tabs on*과는 달리 *open the safe with*의 표현에는 관용적인 표현이 없다. 그리고 (7b)에 있는 *the safe*는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의해 자유롭게 수식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것은 전치사 좌초 현상을 설명하는 데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Figure. 3에 의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PPs와 위치를 나타내는 PPs의 경우에는 전

치사가 좌초될 수 없다고 했다. (8a~e)는 시간을 나타내는 PPs와 관련이 있고 (9a~g)는 위치를 나타내는 PPs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8)a. What day did she arrive [on t]?

b. Which World War did John lose his arm [in t]?

c. Which party did John write the letter [after t]?

d. When are you staying [till t]?

e. Which act did John leave the theater [after t]?

(9)a. Which park did you find the rabbit [in t]?

b. Which book did you find that quote [in t]? (Riemsdijk and Williams (1986:67))

c. Which city did the president make his inaugural speech [in t]?

d. Who did Mary sing the song [in front of t]?

e. Which desk was the cat sleeping [under/on t]?

f. Which library do you usually study [at t]?

g. Which state did they build the highway [through t]? (cf. Horn (1974: 40))

시간을 나타내는 PPs와 위치를 나타내는 PPs는 좌초될 수 없다는 것을 위에서 살펴 보았다. 그런데 Hornstein & Weinberg와 Chomsky는 시간을 나타내는 PPs와 위치를 나타내는 PPs 외에도 다른 PPs들이 좌초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10a~e)에서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PPs와 위치를 나타내는 PPs 외에 다른 PPs들도 좌초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10)a.*What do you eat everything [except (for) t]?
 b.*What did he eat salad [without t]?
 c.*Which parent's wishes did John get married [against t]?
 d.*What sort of weather did the quests come [in spite of/
 despite/notwithstanding t]?
 e.*What did you stay at home [because of/ owing to t]?

Hornstein & Weinberg와 Chomsky는 (10a~e)의 예문의 PPs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이들은 PPs가 S에 의해 직접 관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Dresher는 어떠한 PP가 S혹은 VP에 의해 관할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시간을 나타내는 PPs와 위치를 나타내는 PPs가 문두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S에 의해 관할되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PPs가 S에 의해 직접 관할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11a~b)에서 보는 것처럼 (10a~e)에 있는 PPs는 문두 위치에 전치될 수 없다.⁵⁾

- (11)a.*Except eggs John can eat everything.
 b.*Without French dressing John ate salad.

따라서 우리는 (10a~e)에 있는 모든 PPs가 S에 의해 관할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위의 논의는 비수용성 상태를 일관성 있게 다룰 수 없다.

2. Chomsky(의 이론

Chomsky는 전치사 좌초 현상을 다루기 위해 (12)과 같은 공범주 원리(ECP)를 제

5) except for + NP를 포함하여 10(a~e)에 있는 다른 전치사 구들은 문두 위치에 올 수 있다.

안했다.

(12) ECP : [α E] must be properly governed

(2a~d)의 예문은 흔적들이 고유지배 되지 않아 ECP를 위배했기 때문에 비문이 되었다. 반면에 (1a~c)에서 흔적들은 재분석된 동사에 의해 고유지배 되었기 때문에 정문이다. 이 절에서 우리는 Chomsky의 공 범주 원리에 의한 전치사 좌초를 다음 예문을 통해서 보자.

(13)a. Who did you care [for t]?

b. What table did Harry put the mouse [on t]?

c. Who did you write [about t]?

d.*What did you read books [on t]?

e.*Which restaurant did you eat lunch [at t]?

Chomsky는 다음과 같은 공 범주 원리로 전치사 좌초현상을 설명하고 있다.(chomsky 1981:30~340)

Empty Category Principle (Chomsky's formulation)

An Empty Category [β e] must be "properly governed"

Where α properly governs β if and only if α governs β and.

a. $\alpha = [\pm N, \pm V]$ or

b. α is coindexed with β ⁶⁾

6)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요소에 동일한 지표(index)를 부여하는 것. 동일한 지표를 가진 두 개 이상의 요소는 서로 어떠한 점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동일한 지표가 부여되는 주요한 사례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공 범주 $[\beta e]$ 는 고유 지배가 되어야 하고 고유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어휘범주 a 와 선행사 b 이므로 공 범주는 어휘범주와 선행사로 지배되는 경우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치사 $([-N, -V])$ 에 의해서 지배되는 공 범주 $[pp P [\beta e]]$ 의 경우도 개념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이 전치사 좌초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타당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문장(4a)에서 전치사 *for*가 뒤에 있는 흔적 t 를 고유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전치사 좌초현상을 허용하고 있다. (4b)에서도 역시 전치사 *on*이 뒤에 있는 흔적 t 를 고유지배하고 있으므로 역시 정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4)a. $[Who_i s[did you vp[write pp[about t_i]]]]?$

b.* $[What_i did you vp[read NP[books] pp[on t_i]]]?$

c.* $[Which restaurant_i [did you vp[eat NP[lunch] pp[at t_i]]]?$

위의 예문에서 전치사 *on*과 *at*이 뒤에 있는 흔적 t_i 를 지배하고 있으나 고유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므로 비문이 되기 때문에 전치사 좌초현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것이 지배되고 어느 것이 고유지배인지의 구별이 확실치 못하므로 실제 사용에 있어서 Chomsky의 공 범주 이론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배의 정의가 성격이 다른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

(1) 주어와 정형동사의 일치를 설명하기 위한 ARG과 주어와의 동일지표 부여

$[IP John_i [INFL Tense AGR_i] laugh].$

(2) α 이동(Move- α)에 의한 동일지표 부여

John was killed t_i .

(3) S 구조에서 모든 논항의 위치에 대하여 자유롭게 부여된 지표가 일치하였을 경우

$John_i believes that Mary loves him_i.$

면, 공범주가 어휘범주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또는 선행사에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공범주가 동사, 형용사, 명사, 전치사 같은 어휘범주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선행사가 없을 수 있으며, 선행사에 의해 지배된다면 어휘 지배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질적인 요인에 의해 지배가 정의되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

둘째로, Chomsky(1981)는 Agr이 어휘 지배자가 아니므로 고유 지배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공 범주 원리가 왜 그렇게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셋째, 전치사에 관한 문제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5)a. How many boys did she smile [at t]?

b. Who did you write [about t]?

(16)a.*How many reasons did she smile [for t]?

b.*What did you read books [on t]?

c.*Which restaurant did you eat lunch [at t]?

Chomsky(1981)의 공 범주 원리에 따르면, 어휘 범주는 전치사 P^0 을 포함하여 N^0 , P^0 , A^0 이 된다. 따라서 (15a~b)에서 흔적은 각각 전치사 at과 about에 의해 고유 지배됨으로 정문이다. 그렇다면 똑같이 전치사 좌초가 일어나고 있는 (16a~c)에서도 전치사가 흔적을 고유 지배하고 있으므로 정문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치사 좌초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Chomsky(1981)가 제안한 공 범주 원리는 (15a~b)와 같은 전치사 좌초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16a~c)와 같은 여타의 자료에서 전치사 좌초가 허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즉 공 범주 원리로는 전치사 좌초 현상의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공 범주 원리를 확대 적용하자는 제안을 한 Kayne의 분석을 살펴보자.

3. Kayne의 이론

Kayne는 Chomsky와는 달리 선행사와 지배자의 개념을 통합시켜 공 범주 원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17) 공 범주 원리 확대(Kayne 1981:105)

An empty category β must have an antecedent α such that

(i) α governs β **or** (ii) α c-commands β and there exists a lexical category X such that X governs β and α is contained in some percolation projection of X .

Kayne의 공 범주 원리에 의하면, 공 범주는 반드시 선행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선행사가 공 범주를 지배하거나 성분통어하고, 공 범주는 지배자(어휘범주)를 통해 선행사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Kayne은 공 범주 원리를 정의함에 있어 삼투 투사(percolation projec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공 범주와 선행사를 연결시키고 있다.

동사구에 속한 전치사 구에서만 전치사 좌초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H&W는 재분석 조건으로 포착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사구에 의해 직접 지배되는 오른쪽 요소가 동사와 결합하여 복합 동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Kayne은 삼투로써 이런 관계를 포착 하였다. 즉 동사는 지배하는 전치사구에 상표(superscript)를 부여하고, 전치사 구는 다시 핵 요소인 전치사에 동일한 상표를 부여한다. 이와 같이, $V \rightarrow PP \rightarrow P$ 로 상표가 부여되어 가는 현상을 삼투라고 한다. 동사가 절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 동사의 상표가 절에 부여되고, 다시 피지배 절의 핵 요소인 동사에 이 상표가 부여된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 a. $\bar{V}..(PP.. \bar{P}..)$

b. $\bar{V}..(S.. \bar{V}..)$

삼투 투사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9) α is a percolation projection of β if α is a projection of β , or α is a projection of γ , where γ bears the same superscript as β and governs a projection of β , or a percolation projection of β .

(20) 상표 공부여(co-superscripting) : 상 위절 동사는 보문절의 핵 요소인 동사에 동일한 상표를 부여하여 삼투 투사를 가능하게 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삼투 투사를 살펴보자.

- (21)a. Who did you [VP [V vote] [pp [p for] [NP t]]]?
 b. Who do you [VP [V1 think] [CP [COMP that] [s [NP Mary] [INFL PAST, AGR] [VP [V2 see] [NP t]]]]].

(21a)에서 동사는 그것이 지배하는 PP에 상표를 부여하고, PP는 다시 그것의 핵 요소인 전치사에 상표를 부여하게 된다. (21b)에서는 주절 동사 *think*가 CP를 지배하므로 CP는 V1의 상표를 부여받고, 다시 CP는 그것이 지배하는 핵 요소인 V2에 그 상표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V2의 최대 투사 범주인 CP가 V2의 삼투 투사 범주가 될 수 있다.

Kayne의 공 범주 원리 확대는 Chomsky의 공 범주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주어와 목적어 비대칭을 잘 설명해 준다.

- (22)a.* Who_i does Mary think [CP [COMP t_i] that] [s t_i hit John]]?
 b. Who_i does Mary think [CP [COMP t_i] [s t_i hit John]]?
 c. Who_i does Mary think [CP [COMP t_i] that] [s Bill hit t_i]]?
 d. Who_i does Mary think [CP [COMP t_i] [s Bill hit t_i]]?

(22b)의 t_i 는 I_i 에 의해 지배되므로 같은 상표를 부여받는다. I_i 은 주절동사 *think*에 의해 지배되며, *think*의 삼투 투사인 전체 구조에서 I_i 를 성분 통어하는 Mo_i 를 선행사로 갖는다. 그래서 (22b)는 정문이다. (22c)의 t_i 는 *hit*에 의해 지배되므로 t_i 를 성분통어하는 선행사를 *hit*의 삼투 투사 안에서 찾아야 한다. 주절 동사 *think*가 내포문을 지배하므로 *hit*의 최대 삼투 투사는 전체 구조가 된다. I_i 은 *that*으로 인해 t_i 를 성분통어하지 못하나, Mo_i 는 t_i 를 성분통어 하므로 t_i 는 공범주 원리를 지킨다. I_i 은 (22b)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범주 원리를 지킨다. (22d)에서도 t_i 는 *hit*에 의해 지배되며, *hit*의 최대 삼투 투사는 전체 구조이다. Mo_i 와 I_i 은 모두 t_i 를 성분통어 하므로 t_i 는 공 범주 원리를 지킨다. 그러나 (22a)에서는 COMP내의 I_i 은 공 범주 원리를 지키지만, t_i 는 어떤 어휘 범주로부터도 지배되지 못하고 또 I_i 은 *that*으로 인해 t_i 를 지배하지 못하므로 공 범주 원리를 어긴다. 그래서 (22a)는 비문이 된다.

Kayne이 수정 제시한 공 범주 원리는 Chomsky의 공 범주 원리로는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 중 하나인 전치사 좌초의 예들도 잘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3)a. Which bed did Tom sleep in?

b.*What time did you arrive at?

(23a)와 (23b)은 PP가 무엇에 의해 관할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즉, (23a)처럼 VP가 직접 관할하는 PP속에서는 NP를 PP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23b)처럼 S가 직접 관할하는 PP에서는 NP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3a)를 좀 더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4) [_{CP} Which bed_i [_S Tom [_{INFL} PAST, AGR] [_{VP} [_V sleep] [_{PP} [_P in] [_{NP} e_i]]]]].

(24)에서는 VP가 직접 관할하는 PP속에서 NP가 추출되며, 이 때 공범주는 전치사 *in*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다. 왜냐하면 P의 최대 투사 범주인 PP가 V에 의해 지배되면서 V와 P가 동일한 상표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V의 투사 범주인 CP가 P의 삼투 투사 범주가 되어, 전치사가 P의 지배를 받는 공범주의 선행사인 *which bed*가 CP의 범위 내에 있으면 된다. 따라서 (24)는 정문이 된다.

(23b)를 좀 더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5)* [CP What time [S you [INFL PAST, AGR] [VP arrive] [PP [P at] [NP e]]]].

(25)에서는 PP가 S에 관할되어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PP가 V에 지배되지 않아서 P는 V와 동일한 상표를 갖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P의 삼투 투사 범주가 PP내로 제한된다. 그런데 공범주의 선행사인 *what time*이 PP 밖으로 벗어나 있으므로 비문이 된다. 이와 같이 Kayne은 공 범주 원리를 확대함으로써 Chomsky의 공 범주 원리로 설명할 수 없었던 전치사 좌초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다른 예문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기 위하여, 앞에서 다루었던 (14a~c)의 예문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한다.

(26)a. [*Who*_i [S did you [VP write [PP about \bar{t}_i]]]]?

b.*[*What*_i [S did you [VP read [NP books [PP on \bar{t}_i]]]]?

c.*[Which *restaurant*_i [did you [VP eat [NP lunch [PP at \bar{t}_i]]]]?

(26a~c)의 모든 흔적 \bar{t}_i 는 전치사에 의해 고유 지배되고 있다. Chomsky의 공 범주 원리 (12)로는 (26a)만 정문이고 왜 (26b, c)는 비문이 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Kayne의 공 범주 원리로는 설명할 수가 있다. (26a)에서 동사 *write*는 전치사구를 지배하므로 삼투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26b, c)에서 동사 *read*와 *eat*가 각각 전치사구를 하위범주와 하지 않아서, 전치사의 최대투사는 전치사구 이내로 제

한되고 그 안에서 t 를 성분통어 하는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Kayne은 삼투 투사 원리로 전치사 좌초를 설명하는데 그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Kayne의 공 범주 원리는 S구조에만 적용되고 논리형태(Logical Form)에는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논리형태에서의 이동규칙은 어떤 요소라도 추출될 수 있다. 그러나 Kayne의 공 범주 원리로는 이것을 포착하지 못한다.

(27)a.* Who did John come back [before I had a chance to talk to t]?

b. Who came back [before I had a chance to talk to whom]?

(27b)를 Kayne의 공 범주 원리에 비추어 보면, 전치사는 고유 지배자가 아니므로 그 최대 투사가 PP내로 제한되고 그 안에서는 선행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27a)처럼 비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문이므로 Kayne의 공 범주 원리로 설명이 불가능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7a)의 문장이 정문이 되려면 t 의 선행사인 *who*가 t 를 지배하거나 *who*가 t 의 삼투 투사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who*가 t 를 지배할 수 없다. 따라서 *who*가 t 혹은 t 의 지배자인 *to*나 *talk*의 삼투 투사 속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before*이하의 *come*의 성분통어를 받지 않으므로 *talk*의 삼투 투사 영역은 *before*이하의 절이다. 결국 *who*는 삼투 투사 영역 밖에 있으므로, t 의 선행사가 될 수 없어서 비문이다. 같은 이치로 만약 공 범주 원리 확대가 논리형태에도 적용된다면, 같은 구조의 (27b)도 비문이어야 하는데 왜 정문이 되는지 설명할 수 없어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왜 공 범주 원리 확대가 S 구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둘째, Kayne은 (28a, b)처럼 NP이동과 WH이동 구문간의 비대칭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28)a.* John was talked to Harry about.

b. Who did Sam talk to Harry about?

이상으로, Kayne이 제시한 공 범주 원리 확대와 삼투 투사의 개념을 이용하여 전치사 좌초 현상을 살펴보고, 그의 분석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9)a. Who did you care [for t]?
 b. Who did John speak [to t]?
 c. Who did Sam talk to Harry [about t]?
 d. What table did Harry put the mouse [on t]?

- (30)a. Harry was cared for.
 b. Tom was spoken to.
 c. John was talked about.
 d. The room has been paid for.

위의 (29a~d)에서 제시되는 예문들은 보충어 전치사구로부터 Wh-이동이 일어나 전치사 좌초를 야기한 경우이고 (30a~d)의 예문들은 NP-이동에 의해 전치사 좌초가 야기된 경우이다. NP-이동에 의해 전치사 좌초가 야기된 (30a~d)와 같은 예문들은 전통문법에서는 이른 바 전치사 수동태라 한다. 그러나 전치사 수동태는 영어에서 조차 많은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 (31)a.*Tom was given the book to.
 b.*John was talked to Harry about.
 c.*The table was put th mouse on.

위의 (31a~c)의 예문들은 모두 보충어 전치사로부터 NP-이동이 일어나 전치사 좌초가 일어난 전치사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30a~d)와는 달리 모두 비문이다. (30a~d)와 (31a~c)의 외견상 차이는 (30a~d)에서는 좌초된 전치사가 동사에 인

접해 있으나 (29a~c)에서는 다른 보충어에 의해 동사와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9a~d)와 (30a~d)의 대조에서 나타나는 문법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동사 인접원리의 설정으로 간단히 포착될 수 있다.

(32) In prepositional passives, the stranded preposition must be adjacent to the verb that selects its projection as a complement.

즉, (31a~c)의 예문들에서는 모두 좌초된 전치사가 그를 보충어로 취하는 동사에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32)의 동사인접원리를 위배 되어 비문법적 문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33)a. John was taken advantage of.

b. Fred was kept tabs on.

c. She was taken care for.

(33a~c)에서 보는바와 같이 영어에서 많은 경우 NP-이동에 의해 좌초된 전치사가 동사에 인접해 있지 않아도 문법적인 전치사 수동태 구문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34)a.*The splendid stadium was eventually arrived at.

b.*The tunnel was very carefully gone into by the engineers.

(34a~b)의 예문들에서는 좌초된 전치사가 그것을 보충어로 취하는 동사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수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장들도 동사와 그것의 보충어 전치사구의 결합이 관용적 의미(idiomatic meaning)를 갖는다면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35)a. The expected result was eventually arrived at.

b. The problem was very carefully gone into by the engineers.

더 나아가 우리는 Chomsky의 이론에 대하여 논쟁이 되는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 두 문장을 살펴보자.

(36)a. Which party did John write the letter [after t]?

b.??/*Which party did John bury the letter [after t]?

(37)a. Which music professor did she sing the song [in front of t]?

b.??/*Which music professor did she forget the song [in front of t]?

(36)과 (37)에 각 사용된 전치사들은 같은 것으로 사용이 되었으나 두 문장의 수용성은 다르다. 위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그러한 통사적 분석들에서 전치사구의 같은 종류는 동일한 노드로 관찰된다. 따라서 (36a, b)와 (37a, b)에서 본 수용성 차이는 전혀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VPs 혹은 Ss에서 대조되는 것처럼 NPs에서의 전치사 좌초에 관해서 Chomsky(1977:114)와 Koster (1978:564)는 (38a, b)와 같은 예문들을 끌어내어 동사의 특유한 언어 성질에 전치사 좌초의 수용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추측하게 된다. 그들은 외치 기능으로 인해 적당한 PP, of t가 더 큰 NP, a picture of t 로 이동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치 규칙은 *see*, *find* 등 이외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destroy*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8)a. Who did you see a picture [of t]?

b. *Who did you destroy a picture [of t]?

Chomsky와 Koster와 같은 언어학자들은 (36a, b)와 (37a, b)에 대해 이러한 논

쟁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와 관련된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수용성의 차이점에 있다: 즉, 아직 연구되지 않은 일부 통사적 제안이 *write*와 *sing* 에는 적용되지만 *bury*와 *forget*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문문에서 동사의 선택에 상관없이 완전히 수용적인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39) Which attack did the pirates bury the treasure [after t]?

두 번째 반론으로 우리는 전치사 좌초의 수용성 상태가 정말로 전후문맥 혹은 화자/청자의 공동 지식에 달려있는 요소로 지적해내려고 한다. 예를 들어 (40a, b)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예문 (37b)와 (2b)는 (41a, b)에서처럼 적절한 전후문맥이 어디에 위치해야 가장 적절하게 수용되는지를 밝혀낸다.

(40)a.??/*Which music professor did she forget the song [in front of t]?

b.??Which stage did Harry hit Mary [on t]?

(41)a.(She was appearing on a stage for the first time in her life. Therefore she was very excited and forgot the words of the song.)

Which music professor did she forget the song [in front of t]?

b. A: The actors used three stapes during the performance; a front stage, a main stage, and a suspended stage. Harry and Mary moved from one to the other at various stages of the performance.

B: I see. Which stage did Harry hit Mary [on t]?

지금까지는 전후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혹은 화자/청자의 화용론적 지식이 수용성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사론적 접근법으로 생각해 왔다. 위에서 약술했던 통사적 분석들은 (40a, b)와 (41a, b)에서 본 것처럼 전후맥락과 전치사 좌초의 수용성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포착하는데 실패했다.

이것은 전치사 좌초 분석이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오로지 통사적 접

근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제약들을 조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비 모순성과 전치사 좌초의 설득력 있는 설명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즉 통사론적 분석에서는 전치사 좌초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았다.

III. 전치사 좌초 현상의 기능적 분석

1. 현저성 원리

전치사 좌초 현상은 명사구에 내포된 전치사구 안에서 Wh-이동이 일어날 때에도 발생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42)a. John wrote a book about Nixon.

b. Who did John write [NP a book about t]?

(43)a. John destroyed a book about Nixon.

b.*Who did John destroy [NP a book about t]?

Erteschik-Shir(1981) 과 Kuno(1987)는 NPs에서 관찰된 전치사 좌초의 문제를 기능적 접근으로 발전시킨다. 이 절에서 우리는 간단히 Erteschik-Shir과 Kuno에 의해 제시된 기능적 접근을 재검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접근이 VPs와 Ss에서 관찰된 전치사 좌초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 적용된다면 그들의 예측은 앞으로 논의할 더/덜 중요한 정보에 대한 개념에 근거한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해 논의될 것들과 일치하는 지를 입증해 줄 것이다. Erteschik-Shir(1981)은 추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은 ‘현저성(dominance)’ 이라고 명시한다.

(44) Dominance

A Constituent c of a sentence S is dominant in S if and only if the speaker intends to direct the hearer's attention to the intention of c, by uttering S.

(44)을 근거로 하여 (45)과 같은 가설을 다시 세운다.

(45) Dominance Principle

A constituent that undergoes extraction must be dominant in the S.

Erteschik-Shir는 문장의 특별한 구성요소들이 관할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능적인 테스트 중 하나인 다음과 같은 'lie-test'를 제안한다.

(46) Sam said : John wrote a book about Nixon.

Which is a lie - it was about a rhinoceros.

(47) Sam said : John destroyed a book about Nixon.

*Which is a lie - it was about a rhinoceros.

청자의 관심을 (*about*) *Nixon*에 관한 책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42)에 적용된 테스트는 *Nixon*이 관할된다고 본다. 반면에 (*about*)*Nixon*이 관할되지 않는다고 표기한 (47)의 비수용적 반응은 동사 *destroy*의 의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화자는 그 책의 내용보다 파괴의 행동에 청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Kuno(1987:23)는 각기 (48a, b)에 상응하는 (49a, b)의 문장을 제시한다. (48a, b)의 문장은 추출 되지 않은 문장이다.

(48)a. Who did you buy [NP a book about t]?

b.*Who did you lose [NP a book about t]?

(49)a. Yesterday, on my way home, I bought a book on John Irving.

b. Yesterday, on my way home, I lost a book on John Irving.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책이 *John Irving* 이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48b)에서 보다 (49a)에서 훨씬 더 적절하다. 이것은 내용 때문에 누군가가 책을 사지만 내용

때문에 책을 잃어버리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50)은 (49b)에서는 아니지만 (49a)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된다.

(50) He is one of the contemporary authors that I like, and I have read all the novels that he has published.

더 나아가, 이런 차이는 *John Irving*을 (49b)에서는 아니지만 (49a)에서는 그 문장의 주제로 부여받는다. 이런 관찰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설로 내세운다.

(51) Topichood Condition for Extraction:

Only those constituents in a sentence that qualify as the topic of the sentence can undergo extraction processes.

현재성 원리(44)와 추출에 대한 주제성의 조건 (51)으로 NPs에서 관찰되는 일부 전치사 좌초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현재성을 지닌 구성요소와 그 문장의 주제는 우리가 이 논문에서 앞으로 사용할 더 중요한 정보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44)와 (51)은 NPs에서 전치사 좌초를 포착할 수 있으며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예문들을 잘 다룰 수 있는가? 하지만 (44)와 (51)의 원리에 의해 VPs와 Ss에서 전치사 좌초를 다룬다면 종종 잘못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할 정보의 중요성 원리가 더 포괄적으로 전치사 좌초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44)와 (51)의 원리가 (52a, b)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52)a. Which party did John write the letter [after t]?

b.??/*Which party did John bury the letter [after t]?

(52a)에서 VP, *write the letter* 보다 PP, *after which party* 가 관찰된다. 반면에 동사 *bury*의 의미론적 영향 때문에 (52b)의 경우에는 반대이다. 따라서 (52a)에서 추출은 (44)와 (51)를 따르지만 (52b)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53)a.*What did John eat salad [without t]?

b.*What do you eat everything [except (for) t]?

c.*Which patent's wishes did John get married [against t]?

d.*What did John climb up the mountain [in spite of t]?

예를 들어 (53c)에 상응하는 추출을 겪지 않은 문장을 설명할 때,

(54) John get married against his father's wishes.

다음과 같은 lie-test가 보여주듯 (*against*) *his father's wishes*는 현저성을 지닌 요소로 해석된다.

(55) Sam said : John got married against his father's wishes.

Which is a lie - he got married against his mother's wishes.

(56)은 (54)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기 때문에 *his father's wishes*는 그 문장의 주제로 부여 받는다.

(56) His father has been worried about John's marriage and has been hoping that John would get married to Sue.

그 결과 (53c)에서 추출은 (44)와 (51)의 원리 둘 다 따른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

상하게도 (53c)를 수용가능하게 한다. 이 경우는 다른 예문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4)와 (51)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는 잘못된 예측을 한다.

(57)*Which party did John write the letter to Mary [after t]?

(57)에 상응하는 추출을 겪지 않은 (58)을 보자.

(58) John wrote a letter to Mary after the party.

to Mary 혹은 *after the party* 어느 쪽이든 현저한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 lie-test는 두 문장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9) Sam said : John wrote a letter to Mary after the party.

a: Which is a lie - he wrote it to Susan.

b: Which is a lie - he did so after the meeting.

또한 *Mary* 혹은 *the party* 어느 것이든 그 문장의 주제로 부여된다. 왜냐하면 아래의 문장 둘 다 (58)의 자연스러운 연결이기 때문이다.

(60)a. She is a very charming girl and everybody likes her.

b. It (i.e. the party) was very entertaining and all the guests enjoyed it very much.

따라서 아래의 문장(61)뿐 아니라 (57)의 예문도 현저성 원리와 주제성 조건에 따르면 수용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61)만이 수용적이다.

(61) Who did John write the letter [to t] after the party?

위에서 우리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44)과 (51)가 이 논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같은 종류의 예문들에 적용된다면 두 가지 문제점 이외에도 (44)과 (51)의 이론이 적용되게 어렵게 만드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3.3에서 논의할 중요성 정보의 개념은 VPs와 Ss안에서 전치사 좌초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설명한다.

2. 식별 가능성

다음 예문을 보자.

(62)a. Which city did you witness [NP the destruction [PP of t]]?

b.*Which city did you meet [NP the man [PP from t]]?

2장에서 언급했듯이, 위의 (62a)는 Wh 명사구가 PP로부터 추출은 하위인접조건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문이 된다. 반면, (62b)는 하위인접 조건을 위배하여 비문이 된다. 이를 통사 제약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3) Preposition stranding in NPs is allowed if and only if the PP in question is a complement of the head N. Otherwise, it is disallowed.

그러나 통사적 분석으로는 (64)의 예문이 왜 비문이 되는 것인지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64)의 NP구조는 (62a)과 같은데도 전치사 좌초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64)*/?What major did you meet [a student [of t]]?

다른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NP속에 있는 PP에서의 전치사 좌초는 PP가 N의 보충어인가 아닌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65)식별 가능성 조건(Identifiability Condition)

Extraction of X from the structure [NP [pp P x]] is possible if and only if the head NP can be identified by the PP.

(65)의 식별 가능성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펴보자.

(66)a. Which book is Mary the author of t?

b. Which house did you repair the roof of t?

c. Which door did I give Tom a key to/for t?

(66)에서 *the author*, *the roof*, *a key*는 각각 *a book*, *a house*, *a door*와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로 책의 내용, 집의 모양, 문의 생김새를 보면 그것에 맞는 작가, 지붕, 열쇠를 식별해낼 수 있다.

(65)의 식별 가능성 조건으로 (64)의 비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64)에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배경지식이 없다면, 전공만으로 학생을 식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자가 전공으로 인하여 만났던 사람을 식별해내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각각 특별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다는 것이 확실한 맥락 속에서는 (64)는 정문이 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

(67) A: I met some graduate student from different departments of the university yesterday.

B: Which major did you meet student of t?

(68) What branch of physics are you a student of t?

(67B)의 질문에서 학생들이 특별한 전공이 있다는 것은 앞의 담화에서 분명하다. 그리고 (68)에서 화자는 청자가 물리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즉, (67B)의 *student*와 (68)의 *a student*는 그들의 전공으로 식별이 가능한 대상들이다. 따라서 (67B)와 (68)은 (64)와 달리 식별 가능성 제약을 충족시켜 정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NP가 중첩된 예들을 보자.

(69)a. Who did you see [NP a copy [PP of [NP a picture [PP of t]]]]?

b. Who did you meet [NP the friend [PP of [NP a relative [PP of t]]]]?

(70)a.*Which city did you read [NP a book [PP about [NP the wine [PP from t]]]]?

b.*What do you receive [NP requests [PP for [NP articles [PP about t]]]]?

c.*Which car did John write [NP a book [PP about [NP the gears [PP in t]]]]?

(69)와 (70)은 NP가 중첩된 예들로 통사적인 분석에 의하면, WH가 두 개의 NP를 넘어서 앞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하위인접조건을 위배하여 비문이 되어야 하나 (69)는 정문이어서 문제가 된다.

이 예문들을 식별 가능성 조건에 비추어 보자. (69a)에서 PP의 목적어로부터 추출된 *Who*가 사람이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맞는 사진의 사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NP [pp P X]]구조에서 X인 *Who*가 추출될 수 있어 정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69b)에서도 PP의 목적어로부터 추출된 *Who*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친척의 친구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정문이다. 반면에 (70a)의 경우, 어떤

도시를 안다고 해서 그 도시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에 관한 책을 식별할 수는 없으므로 [NP [pp P X]]구조에서 X가 추출될 수 없어 전치사 좌초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70b)에서도 PP의 목적어로부터 추출된 주어, 즉 기사(文章)의 내용을 근거로 기사(article)에 대한 요청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 좌초가 허용되지 않는다. (70c)의 경우도 자동차를 보면 그 자동차의 기어를 식별할 수 있지만, 기어에 대한 책을 식별할 수 없어서 전치사 좌초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NP가 중첩된 예들을 통사적 분석으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식별 가능성 조건으로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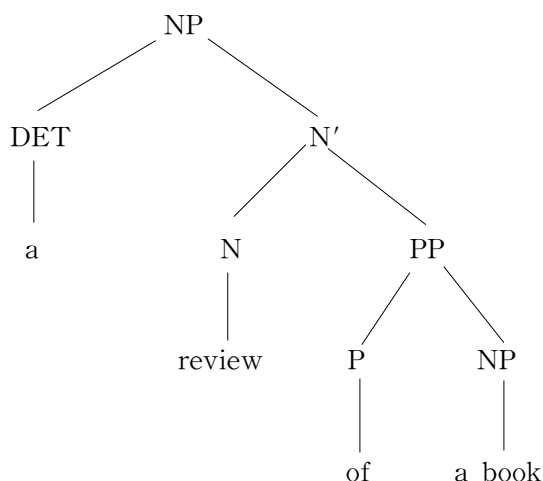
다음 예문은 통사적인 분석과 기능적인 분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71)a. Which book did you read [NP a review [PP of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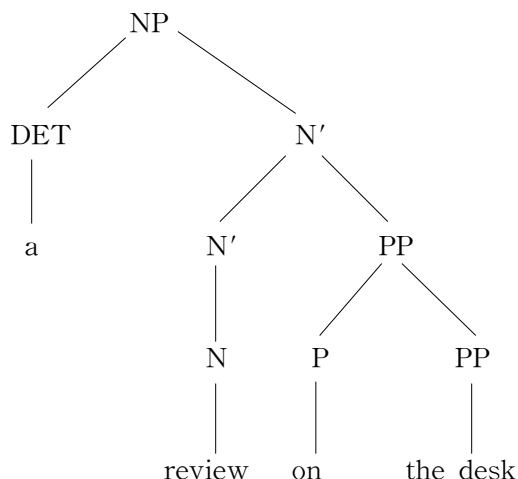
b.*Which desk did you read [NP a review [PP on t]]?

통사적인 분석에서는 NP인 *a review of a book*과 *a review on the desk*의 차이점을 앞에서 언급한 (63)으로 설명할 수 있다. (71a)와 (71b)의 NP구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2)



(73)



(72)에서는 PP가 N(*review*)의 보충어이기 때문에 (63)을 충족시켜서 전치사 좌초가 허용된다. 반면 (73)에서는 PP가 N(*review*)의 보충어가 아니라 N'의 자매이다. 따라서 (63)의 제약에 의거하여 전치사 좌초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71)를 기능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NP인 *a review*는 PP에서 추출된 *book*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식별 가능성 조건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NP [pp P X]] 구조에서 X인 *which book*이 추출되어 전치사 좌초가 가능하다. 그러나 *review*와 *desk*는 밀접한 관계가 없으므로 식별 가능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WH이동이 불가능하다.

[NP [pp P X]]에서 NP₂로 NP₁을 식별할 수 있다면 NP₁의 정보적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NP₂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문미에 위치할수록 새로운 정보일 가능성이 크므로, NP₂로 NP₁을 식별할 수 있으면 NP₂의 정보적 중요성이 크게 된다. 반면에 NP₂로 NP₁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NP₁과 NP₂의 정보가 별개의 것이므로, NP₂의 정보적 중요성이 NP₁의 그것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식별 가능성 조건은 정보의 중요성 조건에 포함되는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3. 정보의 중요성

이 절에서는 정보의 중요성에 의한 전치사 좌초현상을 살펴보자. 다음의 예문을 보자.

(74)a. John gave the book to a young girl.

b. The gang opened the safe with a drill.

c. John was still a small boy in 1950. (kuno(1975:168))

(75)a. Which girl did John give the book [to t]?

b. What did the gang open the safe [with t]?

c.*Which year was John still a small boy [in t]?

우리는 (74a, b)에 있는 PPs, *to a young girl* 과 *with a drill* 둘 다 기능적으로 *gave the book*과 *opened the safe* 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전자는 신정보를 전달하고 후자는 구 정보를 전달한다. 이것은 화자가 가장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문장 마지막 자리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준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강제는 문장에서 가장 오른쪽의 어휘범주에 위치한다.

(74c)에서 주목할 것은 Kuno에 의한 PPs, *in 1950*은 *a still small boy* 보다 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그것은 *John*의 상태를 묘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즉 *in 1950*은 구 정보를 전달하고 *a still small boy*가 신정보를 전달한다. 또 다시 *a young girl*과 *with a drill* 둘 다 중요한 신정보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동사 구 혹은 문장 나머지 구성요소들에 의해 *a young girl*이 *with a drill*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은 *a young girl*이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 된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런 전치사 구를 부사적 보어라 부른다. 하지만 *with a drill* 은 하위범주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치사 구는 부가어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부사의 담화 기능의 다양한 통사적 차이점들을 설명할 수 있다.
첫 째로 (76a~c)에서처럼 전치에 관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76)a.*To a young girl John gave the book.

b.?*With a drill the gang opened the safe.

c. In 1950 John was still a small boy.

일반적으로 문장 처음에 위치한 PPs는 환경설정이나 주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정보의 관점으로 문장의 나머지 요소와 비교해보면 그것은 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두 번째는 (74a~c)의 예문들이 (75a~c)의 예문들처럼 의문문 형태로 바꿀 때 논의 중에 있는 PP는 (77a, b)는 의문문에 초점을 맞춰 해석되지만 (77c)에서는 그렇지 않다.

(77)a. Did John give the book to a young girl?

b. Did the gang open the safe with a drill?

c. Was John still a small boy in 1950?

(77a, b)에서 화자가 *John*이 누군가에게 책을 주었다는 것 혹은 패거리들이 뭔가로 금고를 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단지 *John*이 그것을 어린 소녀에게 주었는지 안주었는지를 혹은 패거리들이 드릴로 금고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을 청자들은 통상적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77c)에선, 화자가 청자에게 *John*이 아직도 작은 소년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74a~c)를 부정문의 형태로 만들었다. 여기에서도 역시 부정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

(78)a. John didn't give the book to a young girl.

b. The gang didn't open the safe with a drill.

c. John was not yet a grown-up in 1950.

(78a, b)에선 PPs가 부정문에 대한 초점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78a)는 *John*은 어린소녀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책을 주었다. (78b)는 꽤거리들은 드릴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금고를 열었다. 하지만 (78c)에서, PP는 부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그 문장은 단지 *John*이 이전에 어른이었던 상태를 부정할 뿐이다. (74a, b)와 (74c)에 있는 PPs 사이의 차이점들을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문장의 나머지 구성요소들보다 더 중요하고 신정보를 전달하고 반면에 후자는 문장의 나머지 요소들보다 덜 중요하고 구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런 사실로부터 전치사 좌초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79) 정보의 중요성 조건(More/Less Important Condition)

An NP can only be extracted out of a PP which may be interpreted as being more important (newer) than the rest of the sentence.

가설 (79)는 (75a, b)의 수용성과 (75c)의 비수용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서 Wh-요소는 더 중요한 정보를 지닌 PP로부터 추출되었기 때문에 조건 (79)를 충족시켜 정문이 되지만 후자는 더 중요한 정보로 해석되지 않는 PP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에 조건 (79)를 위배한다.

Kuno가 그의 저서와 논문 등에 사용했던 신/구 정보의 개념을 이용해 ‘더/덜 중요한 정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80) An element in a sentence represents new (more important) information if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hearer cannot predict or could not have predicted that the element will or would occur in a particular

position within the sentence.

더 중요한 정보가 청자에 의해 예측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어 하는 정보이다. 그러므로 이런 정보는 문장 마지막 위치에 놓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요소는 의문문과 부정문의 초점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는 덜 중요한 정보 보다 더 높은 음조로 그리고 더 강한 강세로 발음된다.

조건 (79)는 다른 예문들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토해 보자. 2장에서 통사 원리에 의해 시간을 나타내는 PPs와 위치를 나타내는 PPs는 좌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PPs와 위치를 나타내는 PPs가 일반적으로 그 문장의 나머지 구성요소 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문장의 주제로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문 (75c)가 이 이론의 전형적인 예문으로 보았다. 반면에 PP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에 남아있는 구성요소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배경지식으로부터 쉽게 추론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만을 전달한다. 그것은 시간(위치)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좌초를 허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예문들로 확인된다.

(81)a. Which year was John born [in t]?

b. Which year did the couple get married [in t]?

위의 (81a, b) 예문은 정문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John*이라고 불리어진다면 그는 이미 태어났고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라면 그들은 이미 결혼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81a, b)는 단지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시간을 식별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

(75c)와 (81a, b)에서 관련된 PP가 더/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아닌지를 이

해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하지만 특히 전치사들이 문맥 없이 제시된다면 전치사들이 정보성에 관련하여 애매한 문장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 전치사들은 일반적으로 (82)에서 보는 것처럼 전치사 좌초가 허용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82) ?Which year did you finish school [in t]?

(83)a.??Which year did you go on a holiday [in t]?

b.??/*Which date did he die [on t]?⁷⁾

(82)에서 화자는 주어 you가 이미 학교를 마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you'가 학교를 끝마쳤다면 졸업연도를 물어보는 것이다. (83a, b)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문장들이 예상하지 못한 맥락에서 발화된다면 (83a, b)의 화자는 'you'가 휴가 중 이었다 또는 'he'는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없다. 당신은 휴가 중 이었다 또는 그는 죽었다는 정보는 이러한 전치사가 덜 중요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더 중요한 정보로 해석될 것이다.

(75c)를 포함하여 (81a, b), (82) 그리고 (83a, b)는 그 문장에 사용된 전치사의 중요도에 관련하여 Fig. 4처럼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가설 (79)는 이런 경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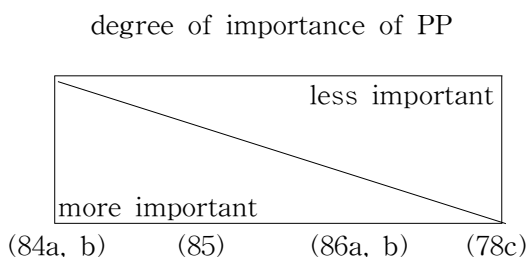


Fig. 4

7) Bresnan 와 Grimshaw(1978:360)에 의하면 이 문장은 비 수용적이다. 하지만 (78c)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모국어 화자들은 둘 중에 이것이 보다 덜 비수용적이라고 한다.

Fig. 4를 지지하는 예문들을 보도록 하자.

(84)a. John was not born in 1950.

b. You didn't finish school in 1950.

c. You didn't go on a holiday in 1950.

d. John was not yet a grown-up in 1950.(=(78c))

부정의 초점은 (84a)의 in 1950 과 (84d)의 *a grown-up* 이다. 하지만 (84b, c)에선 그 해석이 두 가지 면에서 애매하다; (84b)에서 한 가지 해석은 당신이 1950년이 아닌 다른 해에 학교를 마쳤다는 것이고 다른 해석은 1950년에 당신은 아직도 학교를 끝마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자의 해석이 더 유력 할 수 있다.

(84c)에서 한 가지 해석은 당신이 1950년이 아닌 다른 해에 휴가를 갔었다는 것이고 다른 해석은 1950년에 당신은 휴가를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선 후자의 해석이 더 지배적이다. (81a, b), (82), (83a, b)와 (75c)에서 보여준 수용성의 정도는 결코 통사적 분석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사적 분석은 단지 수용성의 중간 단계를 무시하면서 어떤 문장은 수용적이거나 비 수용적 이라고만 예측하기 때문이다.

위치를 나타내는 PPs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85)a. Which park did you find the rabbit [in t]?

(86)b.???Which stage did john hit Mary [on t]?

c.*Which country was the plane still carrying more than 300 passengers
[in/over t]?

(85a)의 화자가 당신이 토끼를 찾았다는 것을 안후에 이 질문을 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치사가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면서, 이 문

장에서 유일한 관심사는 어느 공원에서 토끼를 찾았냐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⁸⁾ 반면에 (86b)에서 전치사가 더 중요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86b)에 상응하는 *John didn't hit Mary on the front stage* 이 문장에서 부정의 초점은 *Mary*를 때린 것 혹은 앞 무대 위 둘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86c)를 보면, 비행기가 여전히 300명 이상의 고객들을 운반하고 있다는 정보는 더 중요한 정보로서 해석된다. 그 결과로서 PP는 그 장면을 설정 해줄 뿐이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 그 비행기는 300명 이상의 고객을 여전히 운반했지만 프랑스에서 그 비행기는 결코 300명 이상의 고객을 운반하지 않는다.

통사적 분석에 대한 반례로 다음과 같은 대조를 이룬 문장들을 살펴보자.

(87)a. Which party did John write the letter [after t]?

b.??/*Which party did John bury the letter [after t]?

(88)a. Which music professor did she sing the song [in front of t]?

b.??/*Which music professor did she forget the song [in front of t]?

(89)a. Which desk was the cat sleeping [under t]?

b.??/*Which desk was the cat scheming [under t]?

8) (85a)에서 관사 the는 found the rabbit이 PP보다 덜 중요한 정보 혹은 예측가능한 정보로서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the의 사용은 청자가 쉽게 화자가 언급하고 있는 rabbit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the 혹은 소유격 NP와는 달리, a(an)의 사용은 VP와 관련된 부분을 더욱 중요한 정보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완전한 수용성을 갖지 못한다.

(i) (?)Which party did John write a letter [after t]?(cf. 11c)

(ii)??Which party did John write some/letters [after t]?

(iii)*Which park did you find more/any rabbit [in t]?

여기에서 통사론적 분석이 이러한 문장을 다루는데 실패 했다. 이러한 문장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가설 (79)는 이러한 문장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87)~(89)의 예문에서 편지 쓰는 것, 노래 부르는 것 그리고 어디에선가 고양이가 자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행동들이다. 화자는 보통 음조로 이러한 요소에 어떤 특별한 강조도 하지 않는다.

화자의 관심은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PPs에 있다. Wh-요소들은 (79)의 가설처럼 더욱 중요한 정보를 지닌 PPs에서 추출된다. 따라서 (a)예문들은 적절히 수용되는 반면에 (b)예문들 ‘편지를 파묻는 것, 노래를 잊는 것 그리고 고양이의 교활함’은 너무 이례적이고 예상치 못한 정보들이다. 그래서 화자는 이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즉 이러한 전치사들은 더욱 중요한 정보로서 해석한다. 한편 (87-89b)에서는 Wh-요소들이 덜 중요한 전치사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가설 (79)를 위배하여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87b)는 청자나 화자가 *John*이 편지를 받을 때는 언제나 그것을 묻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문장은 완벽하게 수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적 설명이 앞에서 언급한 다음의 문장을 설명할 수도 있다.

(90) Which attack did the pirates bury the treasure [after t]?

해적이 보물을 묻었다는 것은 쉽게 추측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bury*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는 더 이상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화자의 관심은 PP로 옮겨간다. 그래서 Wh-요소는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PP에서 추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에서 보았듯이 부정의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91)a. John didn't write the letter after the party.

b. John didn't bury the letter after the party.

(91a)에서 보통 음조로 부정의 초점은 분명히 *after the party*에 있다. 이 것은 다음과 같은 담화의 수용성으로 확인된다.

(92) John didn't write the letter after the party. He wrote it after the meeting.

반면에 (91b)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강세를 가진 동사 *bury*가 문장에서 발화된다면 그것은 통상적으로 *after the party*가 초점 이라는 진술이 될 것이다. 그러나 (92)와는 대조적으로 아래의 담화는 이상하다.

(93)??John didn't bury the letter after the party. He buried it after the meeting.

(cf. John didn't bury the letter after the party. He burned it.)

*after the party*가 초점이 되어 해석되는 것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장일 지도 모른다. 또 다음과 같은 의문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94)a. Did John write the letter after the party?

b. Did John bury the letter after the party?

(87)~(89)의 (a)예문들과 (b)예문들은 분열 문 구조에서는 다르게 작용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95)a. It was after the party that John wrote the letter.

b.??It was after the party that John buried the letter.

(95a-b) 분리된 요소는 문장의 초점이기 때문에 *after the party*는 (95a, b)각각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것은 원문 (77a) *John wrote the letter after party* 와 일치하며 이 PP는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95b)의 원문과는 반대로 오히려 *after the party* 보다 *bury the letter*가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⁹⁾

우리는 앞 에서 전치사 좌초가 전후맥락 혹은 화자/청자의 화용론적 지식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논의 해왔다. 이런 화용론적 성격 또한 가설(46) 으로 설명된다. (96)과 (97)를 보자. (97)의 예문은 (41a)를 다시 쓴 것이다.

(96) A: They all went to Hawaii during their vacations : Peter and David went to Hawaii during the winter vacation, and Jane during the summer vacation.

B: I see. Which vacation did John go (to Hawaii) [during t], then?

(97) (She was appearing on a stage for the first time in her life. Therefore she was very excited and forgot the words of the song.)
Which music professor did she forget the song [in front of t]?

전치사 좌초된 문장들이 (96)과 (97)에서 발화되기 전에, *John*이 하와이에 간 것과 그녀가 노래를 잊어버린 것은 그 이전의 문맥에서 이미 명확하게 나타나있다. 따라서 그 의문문들이 발화 될 때 이런 정보의 요소들은 덜 중요하며 화자는 더 중요한 것으로써 해석되어지는 PP로 청자의 관심이 향하길 원한다. 이전의 전후맥락이 없다면 비수용적임에도 불구하고 (96)과 (97)은 수용할 수 있다.

정보성 조건이 또 다른 예문들도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98a~c)를 살펴보자.

9) 더 나아가 Erteschik-Shir 와 Lappin(197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대조적인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i) John wrote the letter after the party; Do you remember the party?

(ii)*John buried the letter after th party; Do you remember the party?

(i)의 첫 문장에서 화자는 청자의 관심을 the party로 유도하고 있지만 (ii)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the party는 (i)에서 두 번째 문장의 topic이 될 수 있지만 (ii)에서는 topic이 될 수 없다.

(98)a.*What probability will Jack come to the party [in t]?

b.*Whose opinion will Janet visit that young man [in t]?

c.*Who is the president a real tyrant [according to t]?

in all probability, in my opinion 그리고 *according to John*과 같은 부사구나 삽입구는 그 문장의 다른 요소들 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Jackendoff에 따르면 부사구나 삽입구는 문장에서 주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부정문에 의해 영향을 받지도 못하고 분리되지도 못하며 또한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없어서 조건(79)의 위배로 (98a~c)는 비문이 된다.

본 논문 2장에서 H&W와 Chomsky 이론의 반례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들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다음을 보자.

(99)a.*What did John eat salad [without t]?

(cf. What did John eat salad [with t]?)

b.*What do you eat everything [except (for) t]?

c.*Which parent's wishes did John get married [against t]?

많은 전치사들은 Wh-구문의 중요성에 의해 전치가 결정된다.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100a~c)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100)a.*Without what did John eat salad?

b.*Except (for) what do you eat everything?

c.*?Against which parent's wishes did John get married?

우리는 어떻게 (99a~c)와 (100a~c)의 비수용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 가설(79)는 (99a~c)에 있는 좌초될 수 없는 전치사를 다룰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99a~c)에서 PPs는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왜냐하면 의문문의 초점은 아래에서 보다시피 PP부분이기 때문이다.

(101)a. Did John eat salad without French dressing?

b. Do you eat everything except eggs?¹⁰⁾

c. Did John get married against his father's wishes?

(101a)에서, *John*이 샐러드를 먹은 것을 안후에 화자가 *John*이 프렌치드레싱 없이 샐러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확실하다. (101a~c)에서 Wh-구가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PP에서 추출된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들은 비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PP가 그 문장의 다른 구성요소들 보다 더/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아닌지만을 논의해왔다. 다시 말해 PP자체가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보충어 NP 혹은 핵 P는 더욱 중요하다는 PP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치사 구에서 보충어 NP는 핵 P보다 더 중요한 정보이다. 이런 점은 P가 AFTER dinner, not BEFORE에서처럼 다른 전치사와 대조를 이루지 않는다면, PP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N이나 NP는 on the DESK, after DINNER, instead of JOHN에서 제 1강세를 받는다는 사실로 인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99a~c)의 전치사들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100a~c)의 전치사들은 근본적으로 일반 전치사들과는 다르다. 이러한 전치사들은 (100a~c)에서 각각의 전치사들이 그 문장의 다른 구성요소들 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PP에서 더 중요한 정보인 보충어 NP라기 보단 오히려 핵 P이다 라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예문들과 마찬가지로 (100a~c)를 설

10) except for의 경우에, PP는 질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그것은 배경지식만을 제공해주며 문두에 위치할 수 있다.

(i) Except for eggs, do you eat everything?

명하기 위해서 가설(79)를 다음과 같이 약간 수정한다.

(102) An NP can only be extracted out of a PP in which the NP may itself be interpreted as being more important than the rest of the sentence.

(99a~c)에서의 전치사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예문들이 지지해 준다.

(103)a. John ate salad without French dressing.

b. John didn't eat salad with French dressing.

(104)a. I eat everything except eggs.

b. I don't eat everything including eggs.

(105)a. John got married against his father's wishes.

b. John didn't get married with (in agreement with) his father's consent.

위에서 언급한 문장이 부정문으로 재구조화 된다면 (106a, b)처럼 그 문장에서 더 중요한 정보 즉, 초점은 부정적인 요소로 이동된다.

(106)a. John went to Hawaii with his wife.

b. John didn't go to Hawaii with his wife.

(106a)에서 *with his wife*는(더욱 구체적으로, (*his*) *wife*)일반적으로 그 문장의 구성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해석된다. 따라서 수정된 가설(102)에 의하면 *Who did John go to Hawaii with?*처럼 좌초된 전치사 *with*를 포함한 의문문은 생성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106b)에선 부정적인 요소 *didn't go (to Hawaii)*는 더욱 중요한 정보로 해석된다. 결국 그것은 (106b)으로 인해 생성된 아래의 문장은

비문이 된다.

(107)*Who didn't John go to Hawaii [with t]?

(107)에서 *didn't* 는 부정적인 요소이어서 *Who* 보다 더 중요하다. Wh-요소는 PP 에서 추출된다. 그것은 더 중요한 요소로 해석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추출은 가설 (102)를 위배하는 것이다. (103)~(105)예문들로 인해 더욱 명확해 진다. 따라서 (99a~c)에서의 Wh-추출 방법은 (107)과 같다.

(99a~c)와 (107)의 예문들이 왜 비 수용적인지에 대한 또 다른 화용론적 이유가 있다. 질문을 할 때 일반적으로 화자는 몇 가지 추측을 가지고 한다. 예를 들어 *Who did you go to Hawaii with?*의 질문에 화자는 'you'가 누군가와 하와이에 갔다는 것을 예측한다. 또한 *Who didn't you go to Hawaii with?* 에서도 화자의 예측은 존재한다. 즉 'you'가 누군가와 하와이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예측은 'you'가 하와이에 함께 가지 않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선 사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좌초된 전치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비문이다.

(108)a.*Who didn't John kiss last night?

(cf. Who did John kiss last night?)

b.*Where didn't you go during the summer vacation?

(cf. Where did you go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이와 같은 방식으로 (99a)에서는 *John*은 다른 것 없이 샐러드를 먹었고, (99b)에서는 *John*이 어떤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다 먹는다. 그리고 (99c)에서는 *John*이 누군가의 소원으로 결혼을 했다는 의미를 각각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이러한 예측에 근거하여 질문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을 알아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Wh-구문 앞으로 이동한 전치사들이 위치한 (100a~c)가 왜 비수용적인지 논의해보자. (100a~c)의 비수용성은 가설 (102)로도 설명 되지 않는다.

다음 문장을 보자.

(109)*What did John climb up the mountain [in spite of/ despite/ notwithstanding t]?

수정된 가설이 (109)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다음의 추출되지 않은 형태를 보자.

(110) John climbed up the mountain in spite of the heavy rain.

(110)에서 화자는 일반사람은 보통 폭우가 내릴 때는 등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John*이 폭우 속에서 등산을 했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놀라운 일이며 예기치 못했던 일임이 분명하다. 이런 예상 밖의 일 혹은 놀람은 *in spite of* 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이것은 (110)이 아래의 문장과 비교될 때 훨씬 더 명확해진다.

(111) John climbed up the mountain in the heavy rain.

(111)에서 표준적인 음조로 발화되는 *the heavy rain*이 *in* 또는 그 문장의 나머지 구성요소들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110)에서 *in spite of* 가 일반적인 사람이 폭우 속에서 등산하지 않는다는 예측을 근거로 하여 더 중요한 정보로 해석되어진다. 다시 (109)의 예문을 살펴보자. (109)에서의 추출은 가설 (102)를 위배한다. Wh-구문이 NP 보다 P(*in spite of, etc*)가 더 중요한 정보로 해석되어지는 PP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109)와 같은 문장이 사용될 수 있는 문맥을 상상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선생님과 학생이 어떤 배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이야기에서 그 배는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출항했다.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지만 점점 어두워져도 그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읽은 후에 선생님은 그 이야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체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112) What sort of weather did the ship leave port [in spite of t]?

(112)의 수용성은 가설(102)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in spite of* 는 전후문맥으로 인하여 덜 중요한 정보로 해석된다.

또 좌초가 되지 않은 전치사들이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13)*/?Which building did John wait for Mary [$\begin{cases} outside \\ inside \end{cases}$ (of) t]?¹¹⁾

다음의 수용적인 문장과 (113)을 비교해 보자.

(114) Which building did John wait for Mary [in t]?

(114)에서 *in*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치사는 제1강세를 받지 않는다. 반면에 *outside (of)/ inside (of)*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들 전치사들 *OUTSIDE (of) the building*처럼 제1강세를 받는다. 이런 논의는 *outside/ inside*는 의미론적으로 서로 대립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NP 추출은 가설(102)를 위배하기 때문에 비문이다.

우리는 가설(102)에 의해 적절히 다루어지는 전치사 좌초에 관한 두 가지 현상을 지적해 냄으로써 이 절을 결론짓고자 한다. 첫 번째는 좌초된 전치사를 포함한 문

11) *outside (of)* 또한 전치사 좌초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앞장에서 논의되었던 *except (for)*의 비좌초성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에서 전치된 Wh-구문이 더 한정된다면 수용적인 문장으로 바뀔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15)a.??What did you feel dizzy [after t]?

b. Which brand of cigarette did you feel dizzy [after t]?

우리 사회에서 현기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육체적인 문제, 지저분함, 사회적 재난 등등. (115a)의 질문에서 *What* 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세부적인 문맥 없이 이런 질문은 통상적인 대화에서 무엇 때문에 현기증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15b)에서 *Which brand of cigarette*와 같이 더 한정된 Wh-구문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Kent가 아닌 Marlboro를 흡연한 후에 현기증을 느끼는 것은 있을 법 하다. 따라서 (115b)에서 Wh-구는 현기증을 느끼는 것과 관련하여 해석되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지금 (115b)의 추출은 가설(102)에 의해 가능하다. Wh-구는 더욱 중요한 정보로 해석되어지는 PP에서 추출된다.¹²⁾

두 번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요소가 VP와 PP사이에 삽입 된다면 수용적인 좌초된 전치사들이 종종 비수용적으로 바뀐다.

(116)a. Which party did John write the letter [after t]?

b.*Which party did John write the letter to Mary [after t]?

(117)a. Which attack did the pirates bury the treasure [after t]?

b.*Which attack did the pirates bury the treasure on the island [after t]?

*to Mary*와 *on the island*의 삽입으로 (116a)는 정문이 되었고 (117b)는 비문이 되었다. 즉 좌초된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 청자는 그 문장이 끝날 때 까지 그 의미

12) Wh-phrase는 앞의 문맥의 조력자로써 더욱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지 모른다.

에 대하여 보류한다. 좌초된 전치사 앞의 요소들이 점점 더 길어질수록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116b)와 (117b)에서 이런 요소들이 청자의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116b)와 (117b)는 비문이 된다. (116b)와 (117b)의 비수용성은 가설(102)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 삽입된 PPs, *to Mary*와 *on the island*는 문장의 정보를 바꾼다. 그리고 PPs 자체가 VPs 혹은 PPs의 구성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정보로 해석된다. 이점은 가설(102)와 일치하는 다음의 수용 가능한 문장에 의해 입증된다.

(118)a. Who did John write the letter [to t] after the party?

b. Which island did the pirates bury the treasure [on t] after the attack?

따라서 (116b)와 (117b)에서 추출은 가설 (102)를 위배하기 때문에 비문이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영어의 전치사 좌초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사적 분석과 기능적 분석을 살펴보았다. 통사적 분석보다는 정보의 중요성이 전치사 좌초현상을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통사적 분석만으로는 전치사 좌초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밝히고, 기능적 접근 방법으로 전치사 좌초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논의했다.

Hornstein & Weinberg(1981)은 사격 여과 장치와 통사 재분석을 제안하여 전치사 좌초현상을 설명했다. 사격 여과 장치란 흔적이 사격을 받게 되면 비수용성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전치사 바로 뒤에는 흔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로맨스(Romance) 언어들은 전치사 좌초 현상이 없는데, 이는 언어 보편적 사격 여과 장치를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전치사 좌초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영어와 같은 언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통사 재분석을 제안한다. 통사 재분석은 동사와 그 동사에 인접해 있는 전치사가 결합하여 복합동사를 형성하는 것이다. 복합동사로 재분석하면, 본래 전치사 목적어 이동으로 생긴 흔적은 사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전치사 좌초가 허용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분석은 동사구에 직접 관할되고 있는 전치사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문장에 직접 관할되고 있는 전치사구와 동사구와 부가된 전치사구 에서 전치사 좌초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Chomsky(1981)는 공 범주 원리를 제안하여 이동을 설명한다. 그의 제안에 의하면 모든 공 범주는 고유지배(proper government)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공 범주는 어휘 범주나 선행사로 지배될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의 공 범주 원리는 매립문의 목적어 위치에서 이동은 허용하지만, 주어 위치에서는 불허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그러나 전치사구에서 Wh-요소가 이동할 때, 정문인 경우와 비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치사 좌초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처럼 통사조건에 의한 전치사 분석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전치사 좌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사적 분석 뿐 아니라 언어의 기능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기능적 접근 방법으로 현저성 원리, 식별성 원리, 정보의 중요성 조건 등으로 전치사 좌초 현상을 설명하였다. 현저성 원리나 식별성도 통사적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한 여러 전치사 좌초 현상을 설명하지만 정보의 중요성 원리가 전치사의 좌초현상을 보다 폭 넓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즉 정보의 중요성 원리는 전치사구가 문장의 나머지 요소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경우에는 전치사 좌초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언어의 기능적 고려는 첫째로 통사적 분석 방법으로 설명하지 못한 많은 전치사 좌초현상을 밝혔으며, 둘째로 동일한 전치사가 사용되더라도 Wh-구의 특정성이나 동사의 의미에 따라 수용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전치사 좌초가 주로 전후관계 혹은 화자/청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정보의 중요성 원리가 다른 문법 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길수. (1998). 영어 전치사 좌초 현상: 선행연구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귀순. (1990). 전치사 좌초의 제 분석. 학술논문. 부산외국어 대학교.
- 김용석. (2004). 전치사 좌초 현상에 관하여.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7, 21-41.
- _____. (1989). 전치사 좌초에 관한 장벽 이론적 접근. 『영어영문학』 제 36권 2호.
- _____. (1990). 전치사 좌초와 최소조건. 한국어학회.
- 윤영춘. (2004). 영어 전치사 좌초 현상.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ltin, M. (1978). *Toward a theory of movement rule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h. D. dissertation)
- Bresnan, J. and J. Grimshaw, (1978). *The passive in lexical theory*. In: J. Bresnan (e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3-86. Cambridge, MA: MIT Press.
-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 Li (ed.), *Subject and topic*, 22-55. New York: Academic Press.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1977). *On wh-movement*. In: P. Culicover, T. Wasow and A. Akmajian (eds.), *Formal syntax*, 71-132.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1-46.

- _____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_____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dger.
- Dresher, B. (1974). *The position and movement of prepositional
phras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Erteschik-Shir, N. (1981). *More on extractability from quasi-NPs*.
Linguistic Inquiry 12, 665-670.
- Erteschik-Shir, N. and S. Lappin, (1979). *Dominance and the
functional explanation of island phenomena*. Theoretical
Linguistics 6, 41-86
- Gueron, J. 198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PP extraposition.
Linguistic Inquiry 11, 637-678.
- Halliday, M. A. 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II. Journal of Linguistics 3, 199-244
- Halliday, M. A. K. and R. Han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ornstein, N. and D. Lightfoot, (1981). *Introduction*. In: N.
Hornstein and D. Lightfoot (eds). *Explanation in
linguistics*, 9-31. London: Longman.
- Hornstein, N. and A. Weinberg. (1981). *Case theory and
preposition stranding*. Linguistic Inquiry 12, 55-91
- Jackendoff, R. 1977. \bar{X} syntax : A study of phrase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Kayne, R. (1981). *ECP extensions*. Linguistic Inquiry 12, 93-133.
- Koster, J. (1978). *Conditions, empty nodes, and markedness*.
Linguistic Inquiry 9, 551-594.

- Kuno, S. (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from Japanese and English*. Linguistic Inquiry 3, 269–320.
- _____(1975). *Conditions for verb phrase deletion*. Foundations of Language 13, 161–175.
- _____(1980). *Functional syntax*, In: E. Moravcsik and J. Werth (eds.), *Syntax and semantics 13: Current approaches to syntax*, 117–135.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1983). Shin nihon bunpoo kenkyu (A new study of Japanese grammar). Tokyo: Taishukan.
- _____(1987). *Functional syntax: anaphora, discourse and empath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New York: Longman
- Takami, K. (1992). *Preposition stranding: from syntactic to functional analyses*.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Van Riemsdijk, H. (1978). *A case study in syntactic markedness: the binding nature of prepositional phrases*. Dordrecht: Foris.
- Van Riemsdijk, H. and E. Williams. (1986).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